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163)(5/7/2022)

제 3 권 내적 위로

제 40 장 사람에게는 선한 것도 없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음, 4-6 절

시 36:9 -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시 18:1 -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욥 12:13 -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요 5:44 -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마 23:12 -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4. 내가 형통할 때마다, 나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나는 주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허망한 존재일 뿐이고, 변덕스럽고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으며, 내가 어떻게 높임을 받고 싶어할 수 있겠습니까? 설마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자랑하겠습니까? 나를 자랑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헛된 것입니다. 헛된 자랑은 지극히 헛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참된 영광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에게서 하늘의 은혜를 빼앗아가 버린다는 점에서 악한 역병 같은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은 주님을 노여우시게 하는 것이고, 사람들로 부터의 칭찬에 목말라 하면, 참된 미덕을 잃습니다.

5. 사람에게 있어서 참된 영광과 거룩한 기쁨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는 데 있고(합 3:18), 자신의 미덕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기뻐하는 데 있으며, 오직 주님을 인해서가 아니면 그 어떤 피조물 속에서도 즐거움을 찾지 않는 데 있습니다. 나의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게 하시고,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주께서 행하신 일이 찬양을 받게 하시며, 주의 거룩하신 이름이 송축을 받게 하시고, 사람들의 칭송이 절대로 내게 향하지 않게 하소서. 주는 나의 영광이시고, 주는 내 마음의 기쁨이시오니, 나는 종일토록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고 기뻐할 것이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 나의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을 것입니다(고후 12:5).

6. 유대인들은 “서로 영광을” 취할지라도(요 5:44),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만을 구할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취하는 모든 영광,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모든 영예, 온갖 세상적인 존귀함은,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참으로 헛되고 무의미한 것일 뿐입니다. 오, 나의 진리이시고 나의 자비이신 나의 하나님,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여, 찬송과 존귀와 능력과 영광이 세세토록 영원무궁히 오직 주께만 있기를 원하옵니다.

말씀과 해설:

진실되게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사람은 결코 자기 자신을 교만히 드러내고 높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1) 하나님이 나의 생명과 힘과 지혜의 근원임을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다. 시 36:9 -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롬 11:36 -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도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다. 요 6:35 -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생명의 근원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힘의 원천이 되신다. 시 18:1 -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삼손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의 근원임을 잘 알게 한다. 사 16:17 -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삼손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의 근원이시다. 욥 12:13 -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잠 9:10 -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참된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연결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는 사람이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된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한다. 잠 3:5-7 - 5.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7.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매사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 약 1:5 -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2) 진정한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며,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광을 입기 때문이다. 죄악되고 교만한 인간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학깃의 아들 아도니야는 자신을 스스로 높여 왕이 되겠다고 말했다. 왕상 1:5 - 그 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야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오십 명을 준비하니.(참고. 아도니야는 다윗의 넷째 아들).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인간은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 요 5:44 -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인간은 영광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낮아지기 보다는 높아지려고 한다.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은 인간적인 영광을 얻을 목적으로 예수님께 자리를 요구했다. 막 10:37 - 여짜오되 주의 영광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을 들은 열 제자는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었는데(막 10:38), 그들이 화를 낸 이유는 그들 역시 육신적인 영광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참된 영광은 인간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살후 1:11-12 - 11. 이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12.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인간이 교만한 마음으로 스스로 영광을 얻으려고 할 때에는 오히려 낮아지고 패망하며, 겸손히 낮아질 때 오히려 높아지고 성공한다. 잠 16:18 -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마 23:12 -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 영광을 얻는 인간은 최선을 다해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간구하셨다. 요 17:1 -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당시 관리 중에도 주님을 믿는 사람이 많았지만 바리새인들 때문에 출교당할까봐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말하지 못했다. 요한은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요 12:43 -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주의 백성은 인간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하며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고전 10:31 -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빌 4:20 -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나를 위한 육신적이며 세속적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2. 질병, 전쟁, 자연재해로 인하여 삶에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치유, 회복, 구원의 역사를 주옵소서.
3. 창립 50 주년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더욱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